

# 02

## TRADE & ORIGIN 동향

- 한국원산지정보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美 통상환경 대응 실무전략 설명회 참여
- 관세청, '미국 관세정책 대응 실무 가이드'  
통관 실무 매뉴얼 발간
- K-발효식품' 김치 수출 100개국 넘어...  
수출액도 2년 연속 사상 최대
- 세계 FTA 동향
  - ① 제2차 한·영 고위급 경제협의회 개최
  - ② 일본, 아프리카와 FTA 추진
  - ③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체결



# TRADE & ORIGIN 동향

## 한국원산지정보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美 통상환경 대응 실무전략 설명회 참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2026년 2월 26일 서울 염곡동 본사에서 한국원산지정보원, TBT종합지원센터와 공동으로 '미국 통상환경 대응 실무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미국 관세조치 변경 동향을 공유하고, 비특혜원산지 판정, 무역기술장벽(TBT) 등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수출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한국원산지정보원과 TBT종합지원센터, 미국 회계법인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했다.

한국원산지정보원 권민경 팀장은 “2026년 대미 통상 환경의 변화와 우리 기업의 실무적 과제”를 주제로 ▲ 특혜 원산지와 비특혜 원산지의 차이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최근 원산지 판정 사례 및 유의 사항 등 관세·비관세 장벽 대응에 필요한 실무 정보를 종합적으로 다뤘다.

TBT종합지원센터와 미국 회계법인의 연사는 ▲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미국 관세조치 주요 내용 ▲ 관세 절감 방안 ▲ 미국 수입신고 정정 및 이의신청 방법 ▲ 최근 TBT 주요 동향과 해외인증지원사업 등에 대해 발표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미국 관세조치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한국원산지정보원, TBT종합지원 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업들의 관세·비관세 애로를 해소하고, 대체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 다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 코트라

## 관세청, '미국 관세정책 대응 실무 가이드' 통관 실무 매뉴얼 발간

관세청은 2026년 2월, 미국의 통관 규제 강화와 통상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관세정책 대응 실무 가이드'를 발간·배포하였다.

이번 가이드는 미국 CBP(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의 사전심사 제도와 신청 절차를 비롯해 품목분류와 원산지 검증에 필요한 입증서류 작성 방법과 예시를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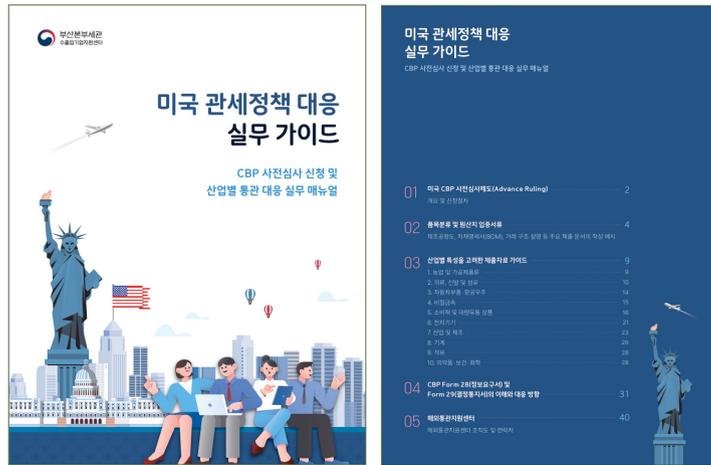


사진 : 관세청

## 〈미국 CBP의 사전심사제도 신청 절차와 원산지 입증서류 발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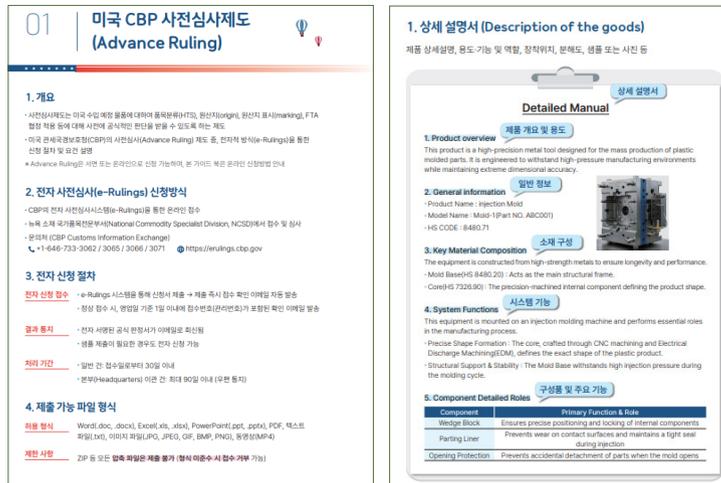


사진 : 관세청 “CBP 사전심사 신청 및 산업별 통관 대응 실무 매뉴얼”

아울러 자동차, 전자기기, 의류 등 주요 수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제출자료 준비 가이드와 CBP Form 28(정보요구서)·Form 29(결정통지서)의 개념 및 대응 방향 등도 포함됐다.

## 〈미국 CBP Form 28, 29의 이해와 대응 방향 발취〉

**04 CBP Form 28 (정보요구서) 및 Form 29(결정통지서)의 이해와 대응 방향**

**CBP Form 28 vs Form 29**

미국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한번쯤 마주할 수 있는 통관 관련 문서가 있습니다. 바로 CBP Form 28(Request for Information)과 CBP Form 29(Notice of Action)입니다. 이 문서들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미국 통관 당국이 특정 수입 신고건에 대해 추가 정보 요청을 하거나 관세 품목분류 원산지 등 수입요건에 대해 조항 규정을 내리기 위한 공식 절차입니다. 만약 이 문서를 받는다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Form 28은 정보 요구서로 이 단계에서 정해진 기간(30일)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Form 29(세관 결정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Form 29를 받으면, 이의제기가 가능한 하지만 Form 28 단계에서의 대응보다 훨씬 어렵고 세부조항, 통관신청, 항부 수입단 심사규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 Form 28을 받았을 때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Form 28 요청서 회신기간(30일) 준수 중요!**  
기간내 회신불가시 CBP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하여 기간연장 신청 필요.

**주요 유의사항**

**1) 원산지 / 우회수출**  
Country of Origin / Transshipment Risk  
- 제품의 원재료, 부품의 원산지 증명 서류 (수입신고서, 구매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구비  
- 실질적 변형 기준 충족을 입증하는 서류(제조공정도 등) 구비  
- 수출입 신고 문서, 포장, 라벨링 등의 원산지 국가 동일성 여부 확인

**2) 품목분류**  
Tariff Classification/ HS Code Risk  
- HS코드 결정 시 제품의 기능, 구성, 재질을 기준으로 했는지 결정  
- CBP Advance Ruling 확인자료, 유사제품에 대한 CBP 판례, 외부 전문가 지원 등 통관지원 적극 구비  
- 과거 동일 제품 수출 시 적용된 HS코드와의 일관성 (동일 품목 HS코드 변경 시 심사 가능성?)

**3) 가격 저가신고**  
Undervaluation Risk  
- Invoice 금액과 실제 거래가격 일치 여부 (이중 인보이스 또는 가격조각형 영의어 함)  
- 운임 보험료·수수료 등 불합 비용 누락 또는 해당 비용 수출가격 전가 여부  
- 할인·리베이트 적용시 근거와 증빙서류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 내부 회계장부와 세관 신고금액의 일치성

**CBP FORM 29**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b>NOTICE OF ACTION</b> THIS IS NOT A NOTICE OF LIQUIDATION		OFFICE OF THE NOTICE	
1. CARRIER	3. DATE OF IMPORTATION	4. DATE OF ENTRY	5. ENTRY NO.		
6. MERCHANDISE SHIPPER	7. COUNTRY	8. CUSTOMS BROKER AND FILE NO.			
9. DESCRIPTION OF MERCHANDISE					
10. TO			11. FROM		
12. THE FOLLOWING ACTION, WHICH WILL RESULT IN AN INCREASE IN DUTIES, --					
<input type="checkbox"/> IS PROPOSED. IF YOU DISAGREE WITH THIS PROPOSED ACTION, PLEASE FURNISH YOUR REASONS IN WRITING TO THIS OFFICE WITHIN 20 DAYS FROM THE DATE OF THIS NOTICE. AFTER 20 DAYS THE ENTRY WILL BE LIQUIDATED AS PROPOSED.					
<input type="checkbox"/> HAS BEEN TAKEN. THE ENTRY IS IN THE LIQUIDATION PROCESS AND IS NOT AVAILABLE FOR REVIEW IN THIS OFFICE.					
TYPE OF ACTION					
<input type="checkbox"/> A. RATE ADVANCE <input type="checkbox"/> B. VALUE ADVANCE <input type="checkbox"/> C. EXCESS <input type="checkbox"/> WEIGHT <input type="checkbox"/> QUANTITY <input type="checkbox"/> D. OTHER(See below)					
13. EXPLANATION (Refer to Action letter designations above)					
14. CUSTOMS OFFICER (Name or Title)		15. TEAM DESIGNATION		16. TELEPHONE	

사진 : 관세청 “CBP 사전심사 신청 및 산업별 통관 대응 실무 매뉴얼”

해당 자료는 관세청 홈페이지 내 통합자료실-관세행정안내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은 “대미 수출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불필요한 통관 지연이나 분쟁을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K-발효식품’ 김치 수출 100개국 넘어... 수출액도 2년 연속 사상 최대

우리나라의 대표 음식인 김치가 2년 연속 수출액 최대치를 경신하며, 단순한 전통 발효식품을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경제적 브랜드로서 세계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2025년 김치(HSK 2005.99-1000) 수출액은 1억6440만 달러(약 2,380억 원)로 집계돼 2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김치 수출은 2016년 7,890만 달러에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 2022년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한 이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사진 : Freepik

김치 수출 대상국도 늘어났다. 2020년 85개국이었던 수출국은 2024년 96개국으로 확대됐고, 2025년에는 102개국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 100개국을 넘어섰다.

#### [최근 5개년(2021~2025) 우리나라 김치(HSK 2005.99-1000) 수출 통계]

단위: 만 달러/개

년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수출액	15,992	14,080	15,560	16,360	16,440

자료 : 관세청

김치 수출 성장의 배경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K-콘텐츠 열풍과 건강식품에 대한 인식 변화가 꼽힌다. 김치는 과거 이국적인 음식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장 건강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발효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김치의 효능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잇따라 소개되면서 해외 소비자 수요가 빠르게 늘었다.

2026년에도 김치 수출은 순항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5~2030 미국인을 위한 식이 지침'(DGA)에서 김치를 권장 식품 중 하나로 포함했다. 해당 지침은 미국 학교 급식과 공공 식단에도 영향을 미치는 가이드라인으로, 미국향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세계 FTA 동향

### ① 한-브라질, 67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관계' 격상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2월 23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브라질 정상회담 직후 룰라 대통령과 함께 언론 공동 발표를 가졌다.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1959년 수교 이후 그간의 꾸준한 협력을 토대로 67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하여 정치·경제·실질 협력·민간 교류 등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이끌 로드맵으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소기업·보건·농업 등을 비롯한 10개 분야에서 양해각서(MOU) 및 약정을 체결, 분야별로 실질적 협력 이행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공급망 협력도 강화된다. 이 대통령은 우주, 방산, 항공 분야의 지평 확대를 언급하며 "브라질 수송기 제조에 우리 부품기업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항공 분야에서도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양국의 협력은 차세대 민항기 공동개발 등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사진 : 청와대

안보 분야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글로벌 정세와 지역 현안을 긴밀하게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남북 대화 재개와 평화 공존 의지를 설명했고, 룰라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했다. 또한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유학생 교류를 늘리고, 영화·영상 공동제작 등 콘텐츠 분야의 교류도 추진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포용적 성장'이라는 공통의 정치 철학을 바탕으로 정책 공조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의 모델과 정부의 '기본사회' 구상을 연결하며,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을 모두가 누리는 'AI 기본사회' 비전을 공유하고 관련 정책을 공동 연구할 것을 제안했다. 향후 정책 연구 분야에서의 공조와 교류를 늘려나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 ② 한-싱가포르, FTA 개선협상 개시

산업통상부는 2026년 3월 2일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민 방문을 계기로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 개선 합의 공동선언문'을 교환하고, 인공지능(AI)·디지털, 과학기술,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총 5건의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싱가포르 FTA는 한-칠레 FTA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로 체결한 FTA다. 싱가포르와의 FTA가 발효 20주년을 맞은 만큼, 모듈형 신통상협정을 적용해 규범을 현대화할 계획이다.

신통상협정은 공급망·그린경제 등 새로운 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표준문안을 마련하고, 추진 대상 국가별 특성과 수요에 따라 적용 분야 및 분야별 세부조항을 선택·조합하는 모듈형 통상협정을 의미한다.

양국 정부는 우선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자(퀀텀), SMR, 우주·위성 기술 등 핵심 과학기술 분야의 정책 공유와 인력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 부총리급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운영하며 국가 역량 제고를 위한 협력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미래 핵심 동력인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협력도 구체화했다. 공공안전 분야의 AI 정책과 지식을 공유하고 관련 산업 내 유망 기업들을 지원하는 내용의 양해각서가 체결됐으며,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시를 활용한 행정 서비스 전환과 보호 체계 정비를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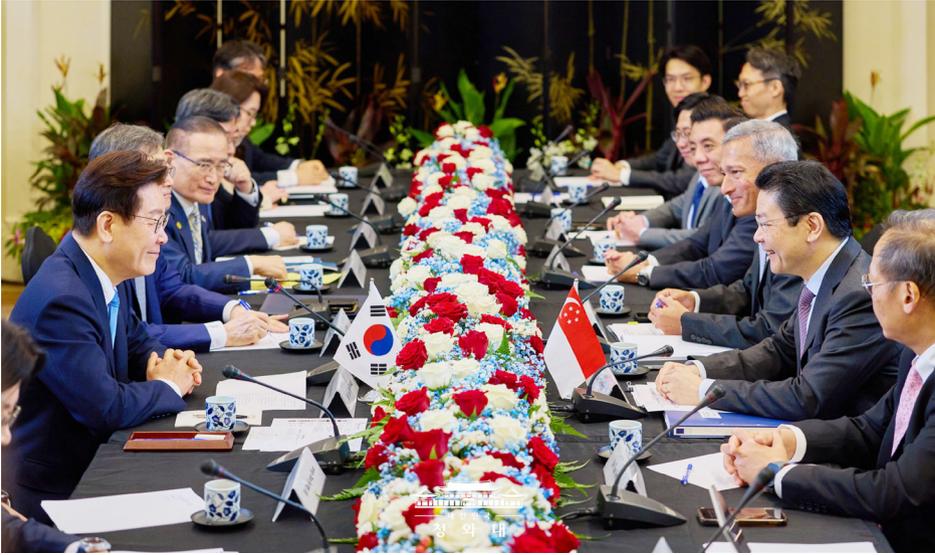


사진 : 청와대

양국 지식재산 기구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에너지와 환경 분야의 실질적 협력 기반도 마련됐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싱가포르 에너지시장청은 소형원전(i-SMR) 사업 모델 공동 개발과 인력 양성, 정보 공유를 골자로 하는 SMR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은 싱가포르 국립환경청과 환경위성 자료 공유 및 대기질 연구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갱신하며 공동 연구를 지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첨단 분야의 포괄적 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고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상호보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③ EU-인도 FTA 체결... 90% 이상 상품 관세 인하·철폐

인도와 유럽연합(EU)이 19년 만에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다. 2026년 2월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이날 수도 뉴델리에서 우르줄라 폰테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FTA 최종 타결을 발표했다.

EU와 인도의 FTA 체결은 전 세계를 겨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로 세계 통상 질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세계 2위와 4위 경제권 간 협정이라는 점에서



사진 : 연합뉴스

주목받는다.

모디 총리는 “양국 교역 규모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5%, 세계 무역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며 “FTA가 인도 14억 국민과 유럽 수백만 국민에게 큰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폰테어라이엔 위원장은 “EU는 전통적으로 보호받은 인도에서 사상 최고 수준의 시장 접근권을 확보하게 된다”며 “인도로 향하는 수출이 두 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인도의 관세는 현재 110%에서 연간 25만대를 한도로, 단계적으로 10%까지 낮아진다. 유럽산 기계(최대 44%), 화학제품(22%), 의약품(11%) 관세는 대부분 철폐된다. 또 최대 22%에 달하던 철강과 철 제품 관세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EU가 “사실상 무역을 가로막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던 유럽산 식품에 대한 36% 이상 관세도 인하되거나 폐지될 예정이다. 유럽산 와인 관세는 150%에서 75%로 낮아지고 최종적으로는 최저 20% 수준까지 떨어질 예정이다. 유럽산 올리브유 관세 45%는 5년에 걸쳐 0%로 낮아지고, 빵과 과자류 등에 부과된 최대 50%의 가공 농산물 관세도 사라진다.

인도는 최대 교역국인 EU와 FTA 체결로 미국의 고관세로 타격을 입은 의류·신발 등 노동집약적 상품 수출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인도 무역부는 “이번 합의로 EU는 7년에 걸쳐 교역 품목의 99.5%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인도산 수산물·가죽·화학·고무·비금속·보석 및 귀금속 등에 대한 관세는 0%로 낮출 것”이라고 전했다

#### ④ 이스라엘·인도, 16개 분야 협정… “FTA도 조속히 확정”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026년 2월 26일(현지시간) 예루살렘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안보·외교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날 농업, 지구물리 탐사, 문화유산, 과학, 교육, 경제, 사이버, 기술, 안보, 인공지능(AI)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총 16건의 협정과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에는 향후 5년간 인도인 노동자 5만 명을 이스라엘에 보내는 내용도 포함됐다.

양국 정상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은 기술과 혁신의 세계적 강국이고 인도는 인재와 우수한 제조업, 기업가 정신을 갖춘 나라”라며 “양국의 역할은 상호보완적이고 협력 잠재력이 크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7년 모디 총리의 이스라엘 방문과 2018년 네타냐후 총리의 인도 방문이 다양한 분야의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인도 상공부에 따르면 인도에서 나흘간 열린 인도-이스라엘 무역 대표단 협상이 2월 26일 종료됐으며, 차기 무역 협상은 5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사진 : SBS

이스라엘과 인도의 FTA 협상은 2010년 시작됐지만 2021년 10월 8차 협상 이후 교착상태에 머물러 왔다. 양국은 2025년 11월에 협상 재개를 위한 기본 협정안에 서명했으며, 조속한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디 총리는 “상호 이익이 되는 FTA를 조속히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다”며 국방 분야에서도 공동 개발과 생산, 기술 이전 등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